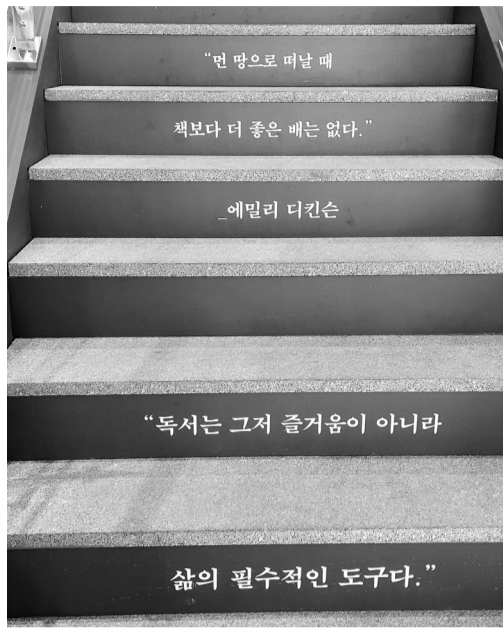


일상 속 책이 주는 유쾌한 압도감



북카페 꿈마가 최근 ACC 남문 인근 파랑새안과점 2층에 오픈했다. 대문호들의 명인이 부착된 계단(왼쪽)과 내부 모습.

들어자마자 넓은 공간과 많은 책들이 눈에 들어온다. 공간과 어울린 책이 주는 유쾌한 압도감이 밀려온다. 오후 시간이라 따스한 별이 창안으로 스며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남쪽 파랑새안과점 2층에 최근 이색적인 북카페가 들어섰다. 베란다와 1, 2층을 포함 240평에 이를 만큼 규모가 만만치 않다. 책도 7000여 권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파랑새안과에서 운영한다.

지난 12월 말에 오픈한 이곳은 출판사 문화동네에서 설립한 '카페꿈마'의 지방 가맹점 1호점이다. 꿈마(대표 김현)에는 '일상의 씬터'를 지향한다는 뜻이 깃들여 있다.

치과의사이기도 한 김현 대표는 꿈마를 오픈한 계기에 대해 "책이 주는 느낌은 참 각별하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는 보살핌의 온기가 따스함은 마치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듯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숨 막히게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책을 통해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고, 위로와 감동을 느끼고 싶다"며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여유와 만족감을 여러 세대, 다양한 배경의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꿈마는 '씬터'의 다른 이름이다. 때문인지 이곳은 '일상의 집을 내려두고 다른 생각에 잠기는 씬'

ACC 인근 파랑새안과점 1·2층 문학동네 북카페 브랜드 '카페꿈마' 1·2층 240평 규모 7000권 보유 북큐레이션·북토크·콘서트도

의 분위기가 넘친다.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읽'을 만드는 것처럼" 함께 느끼고 사유하고 나누는 뜻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꿈마는 인문도시 동구, 특히 ACC의 어린이문화원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

김 대표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여유와 만족감을 여러 세대, 다양한 배경의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위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에는 오픈 첫 문화행사로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5 북토크'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 매달 북토크 등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률 시인을 비롯해 김애란 작가 등을 초청하고 작은 콘서트도 열 예정이다.

이곳에는 독서클럽 등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또한 동구의 다양하고 알찬 인문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더 많은 독서들과 책을 통해 교류하며 책과 관련 행사 외에도 일반 고객을 위한 실내악 연주, 재즈 공연, 전시 등도 열 계획이다.

많은 책들로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다. 이곳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북큐레이션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내가 받은 감동을 타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준다"며 "직원들이 추천한 도서들을 전시해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북카페에는 노벨상 수상 한강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오월문학관과 광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광주 코너' 등도 있다.

김 대표가 북카페를 하게 된 것은 어릴 적 추리나 모험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그는 "전공인 치과 관련 서적 외에는 책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족끼리 도서관과 서점을 가게 되면서 책과 가까워졌다"며 "이곳이 책과 음악과 커피가 함께하는 지친 삶의 씬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계엄 저항 시민들, 그렇게 과거와 현재 연결"

한강 작가 '작별하지 않는다' 미국판 출간 앞 뉴욕타임스 인터뷰

"1979년, 1980년의 기억은, 직접 경험했던 그렇지 않았던 것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한밤중에 거리로 나선 것이죠."

작가 한강(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체 과정을 자신도 초조하게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계엄에 저항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가 연결돼 있다"고 했다.

NYT 인터뷰는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미국판 출간을 앞두고 이뤄졌다.

2021년 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영문판 제목은 'We Do Not Part'이다.

NYT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한국의 권위주의적 과거사를 다루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잠시 계엄령을 선포한 12월 이후 (작품과 현실의) 연관성이 더 커진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강 작가는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여전히 곱곰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장면들을 연이여 다루는 것은 결코 의도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깊이 직면하고 글을 쓰면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행위들을 겪은 피해자들의 경험,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사람들과 자신이 깊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그것은 고통이고, 피"라면서 "하지만 그것은 죽어 남겨지는 부분과 살아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삶의 흐름"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 다녀오는 등 분주히 보낸 그는 요즘 조용히 글을 쓰는 생활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겨울눈이 흩날리면서 작년에 심어 하얗게 피어났던 야생화가 시들었다고도 했다.

"자유롭게 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하고, 어느 정도의 익명성 속에서 부담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작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죠." /연합뉴스

광주 동구, 문화관광 르네상스 연다

빛의 콘서트·버스킹 월드컵 등 신년 계획 발표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재단)이 '제4회 버스킹월드컵', '광주 아파트스 구축·운영',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등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장소형 브랜드 공연 '빛의 콘서트(가제)'는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기존 진행했던 점심콘서트 등을 통·폐합, 광주 명소로 자리잡은 빛의분수대 등에서 야간 공연을 펼친다. 동구 스트리트 문화자산을 활용해 댄스를 배우는 워크숍과 춤 공연도 마련된다.

재단은 글로벌 버스킹 음악축제 자리잡고 있는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도 재정비한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뮤지션들이 참여해 월드컵 방식(예선 및 32강)으로 경합한다.

버스킹 월드컵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버벌(미술 등) 공연, 유명 인디뮤지션 초청 무대를 확대한다. 경연곡 중 1곡은 커버곡(합송)으로 부르는 규칙을 마련해 흥행을 모색한다.

광주를 찾는 여행객을 돕는 '광주 아파트스'도 스마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 운영한다. 재단은 아파트스 가맹점들과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할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지난해 펼쳐진 '제3회 버스킹 월드컵' 공연 장면.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재단 문창현 대표이사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의 힘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재단은 문화관광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해 '동구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열어가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성춘 박사 '북한군 계급' 관련 논문 화제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게재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인 이성춘(사진) 박사가 최근 유명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국동문예연구소)에 북한군 계급 수여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논문은 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 이후 군사칭호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창설단계부터 1955년까지 군사칭호에 관한 사

항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교수는 '조선인민군 군사칭호에 관한 연구: 1948년 창설부터 한국전쟁 및 1955년까지'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조선인민군 군관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며 "최초 창설 당시에는 계급을 사용하지 않고 군사직위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적으로 군복 착용 시 어깨에 착용하는 견장을 계급장 견장으로 잘못 인식하여 창설 당시 군사칭호가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



는데 실제 당시의 견장은 군사직위 견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조선 인민군의 군사직위 제도는 1952년까지 사용되었다. 또한 1952년 12월 31일에 정령을 통해 군사칭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북한 1차 자료 및 중국군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